

# '2030 수소경제사회로 새로운 도약 이끈다'

### 전주시·완주군·전북도,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수소전문가들이 전주에 모여 전북을 미래 수소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2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30 수소경제사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지역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수소정책 및 지역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과 그린수소 및 수소연료전지를 주제로 한 '1부 세션', 액화수소 및 수소모빌리티 주제의 '2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특별세션에서는 바오유시아 중국 HUST대학 교수가 마텐이 호주 RMIT대학 교수가 각각 '전기촉매의 수소생산 및 저장'과 '촉매 수소 생산: 실험실에서 현실로'를 주제로 기조연연에 나섰다.

이어 김성복 수송융합얼라이언스 단장의 '국내·외 수소경제 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이흥기 우석대 교수의 '수소모빌리티 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망'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김영권 전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2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문상진 두산퓨얼셀 R&D사업본부 상무의 '수소연료전지의 특성과 활용' 등 그린수소와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개발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2부 세션에서는 △최병일 한국기계

연구원 고효율에너지기계연구부장의 '액화수소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발전 전략' △최서호 현대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사업부 상무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수소에너지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수소산업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수소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수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기증·나눔 문화 확산 '앞장'

### 전주시의회·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물품 접수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공동대표 김진형)가 5일 기증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는 의회 1층 로비에 기증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의원과 시의회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증 물품 접수에 나섰다.

특히 의회는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날을 선택해 '집중 기부'의 날을 운영, 기부 물품을 최대한 많이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나눔과 순환을 위한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시의회 또한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달 27일 업무협약을 통해 나눔과 순환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심·뇌혈관 질환 심폐소생술·응급처치 홍보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를 당부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해 사망자의 20%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며, 특히 일교차가 크거나 가을이 급격히 떨어지는 10~1월에 급증한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담배 끊기 △술은 하루에 한 두잔 이하로 줄이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 △음식은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 섭취 △정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 △고혈압, 당뇨병 관리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는 심·뇌혈관 질환에 적극 대응하고자 10월을 '내도민 심폐소생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도민생활 점점 다매체 활용 홍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자료 배부 및 신고서비스 안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대면·비대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청년 제안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유·계획 논의

### 전주 청년희망단 6개 팀, 팀별 1개씩 총 6개 청년정책 사업 제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청년희망단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청년 거점공간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단 위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팀별로 발굴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전주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6기 청년희망단은 지난 1월 발대식 이후 6개 팀으로 나뉘어 총 70회 회의를 거쳐서 이날 팀별 1개씩 총 6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6개 정책사업은 △청년센터 서포트팀 운영 △Reusable Cup(재사용 컵)을 통한 일회용품폐기 줄이기 △전주시 장애인 친화음식점 개편 △환경 살리Go, 청년 살리Go! △전주시 인생설계 청년학교 △28% 청년 단기 적금이다.



이 가운데 '전환점' 팀이 제안한 '환경 살리Go, 청년 살리Go!'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19세~34세 청년에게 1인당 월별 교통비 지출금액의 30%까지 최대 2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8%' 팀의 경우 '28% 청년 단기 적금' 사업을 통해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소비활동보다는 저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경

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10개월간 월 28만원씩 저축하면 전주시당상품권 28만원을 지급하고자 제안했다.

시는 제안된 청년희망단의 6개 정책사업에 대해 SNS를 활용해 사전선호도를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사업발표 후 현장심사도 진행했다.

시는 사전 선호도조사와 발표회 점수를 합산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청년희망단 해단식에서 우수정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은 향후 부서별로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을 통해 그동안 △청년소통공간 '비밀' 운영 △청년온라인플랫폼 구축 △청년취업포프 로젝트 △청년갑이어 정책 △지역청년 JOB소통사업 △청년여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통합지원팀(청년이음전주) 구축 등의 청년정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왔다.

/김재훈 기자

### '전주 도서관 여행'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인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개인뿐 아니라 기관·단체 여행이 잇따르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전주의 이색적이고 특별한 도서관들을 여행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상시프로그램 외에도 전국의 도서관·문화계·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는 9월 현재까지 △전주시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교육지원청 등의 교육기관 △안양도서관과 남원시립도서관, 상남시립도서관, 광주 무등도서관, 국방대학교 도서관 등 도서관계 △삼천초등학교와 청주 서경중학교, 전주 사대부고 등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총 34회에 걸쳐 746명이 참여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전남중등서사교과교육연구회 △남원교육지원청 △대구중앙도서관

△울산남의 어린이도서관 등 16개 기관과 300여 명이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사서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서교육훈련 '전국 도서관 탐방' 교육과정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을 채택, 오는 28일 전주에서 전국 도서관 사서 30명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전주시 도서관정책의 우수성과 전주 도서관 여행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이 전주에서 열리기도 했다.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전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들도 전주지역 도서관을 여행하기도 했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의 도서관 문화를 도서관 여행 통해 전국으로 알리고 있다"며 "전주의 새로운 문화자산이자 미래유산인 도서관이 전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김제에서 만나는

## 2022 국제종자박람회

### KOREA SEED EXPO 2022

**10.13 [목] - 15 [토]**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씨앗길 232)

**2022 국제종자박람회 사전등록하고 경품받자!**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관람객 사전등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경품도 받고 온라인 전시장 방문을 통해 관람도 하면 1석 2조! **2022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전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오프라인 병행운영 [www.koreaseedexpo.com](http://www.koreaseedexpo.com) 온라인 **10.13 [목] - 26 [수]**

**대형 전시관 운영으로 종자산업을 한 눈에 관람!**

**국내 유일의 대규모 노지 전시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전시포 보물찾기/종자화분만들기  
새싹키트 만들기 / 나만의 씨앗 만들기  
고구마 수확체험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

주관 **KG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후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kotra** **KOSA**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